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최로 민선 4기 2년차인 200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지자체 및 공모 우수사례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현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공약, 정책의 경연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는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적 대화’를 테마로,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전 지구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제적 행동 모델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소득격차 해소 분야, 초고령화 대응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자치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소식지·방송 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경진대회의 취지 및 목적, 진행방식, 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약담당 부서 및 단체장 비서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 연락을 취했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1차 사례 공모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에 걸쳐 총 353개 사례를 공모하였다. 지난 민선 6기 3년차 2016년에는 125개 기초지자체에서 306개 사례를 공모하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사는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체감성을 중심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 교수,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하였다.

1차 심사결과 353개 공모 사례중 172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2차 본대회 PT 발표를 준비하도록 2차 본대회 진행방식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2차 심사는 경진대회 현장에서 PT발표 및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장 대회를 취소하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2차 본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비대면-온라인 방식 진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우수사례 PT 발표영상을 제작하였다.

우수사례 발표영상은 유튜브에 게시하여 심사위원 및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심사하였고, 최종 결과 172개의 1차 통과 우수사례 중 최우수 38개, 우수 52개 등 총 90개를 우수사례 수상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90개 사례 중 보다 창의적이고 확산 가능성이 뛰어난 사례들을 엄선하여 우수사례 소개 및 그 안에 담긴 스토리 등을 엮어 도서로 발간하였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경진대회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우수 정책공약 및 정책사례 공유, 학습, 확산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번 2020년 경진대회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해에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약 우수사례가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만큼 여느 때보다도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더욱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